

# 壬辰倭亂期 朝·日·明 三國의 水軍 運用策\*

장 학 근\*\*

1. 서 론
2. 조선과 일본의 수군 발전과정
3. 임진란과 조·일 양국의 수군 운용책
4. 정유재란과 조·일·명의 수군운용
5. 결 론

## 1. 서 론

임진·정유왜란은 조선·일본·명 삼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한 국제 전쟁이다. 또한 삼국의 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해전을 펼쳤고 그 결과에 따라 전쟁의 명암을 달리했다.

학계는 이 전쟁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 인물사, 군제사, 외교사, 경제문화교류사, 의병사, 국난극복사 등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연구 해 왔다. 특히 한국의 학자들은 일제식민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순신과

\* 본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의 정책과제로 수행된 논문임.

\*\* 임진왜란사 연구회장

조선 수군에 대한 광목활만한 연구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조·일·명 삼국의 수군 운영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략한 형편이다. 본고는 이점에 유념하여 임진·정유년 간에 나타난 조·일·명 삼국의 수군 운용책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이 전쟁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소략하고, 삼국이 다른 군사정책은 대부분 군사비밀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만족치 못하게 되었다. 단지 이 분야의 시론적(試論的) 연구결과를 냈다는 것으로 자족하려고 한다.

## 2. 조선과 일본의 수군 발전과정

### 1) 조선 수군

조선은 건국하면서 북방변경을 방어하는 군익제(軍翼制)와 남방해안을 방어하는 영진제(營鎭制)를 실시했다. 군익제란 북방민족의 침탈(侵奪)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행정조직을 군사조직으로 활용한 방어제도를 말한다. 함경도와 평안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행정조직이 곧바로 군사조직이었으므로 모두 군인이었다. 그러나 남방의 영진제는 행정제도와 별도의 군사조직으로서 그 임무는 해상으로부터 왜구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적도(賊盜)들이 북방변경과 해안선을 넘어 내륙 깊숙이 침략해올 경우 적도를 제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조 3년 전국을 군사조직으로 재편하였는데 이 제도를 진관제도(鎭管制度)라고 하였다.<sup>1)</sup> 진관제도의 특성은 중요한 전략적 지점을 거진(巨鎭)이라고 하여 주위의 군현을 지휘하여 적도를 방어하게 하였다. 이때 거진에 소속된 군현을 제진(諸鎭)이라 하였다. 만일 거진에서도 적의 도발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주진(主鎭=兵營)의

1) 육군사관학교 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 육군본부, 1962, 161~162쪽.

병사가 도(道) 전체의 병력을 동원하여 적을 퇴치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진관제도는 도 단위의 책임지역방위제도로써 도에는 병영이 설치되었고, 그 곳에는 병사가 최고 지휘관이 되어 휘하 거진의 첨사와 여러 진의 현감·군수를 지휘하였다.

수군(水軍)도 진관제도에 편입되었다. 단지 수군은 해양방위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안과 도서를 도 단위로 구분하고, 한 도에 수사(水使)가 임명되어 부여된 해역을 방어하게 하였다. 수사 예하에 첨사(僉使)와 만호(萬戶)가 있는데 첨사는 거진에 위치하여 예하 만호를 지휘하고, 만호는 연해 포구에 배치되어 관할 해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세조 때 진관제가 성립된 배경에는 왜구의 침탈 양상이 산발적이며 소규모의 침입이었기 때문에 수군의 방위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늘 왜구침탈의 대상이 되었다. 굴곡이 심한 연안과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섬들을 방어해야 하는 수군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일정한 곳에 집중배치하지 못하고 일렬로 늘어놓듯이 병력과 군선을 연안과 도서에 분산·배치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방위선이 길어져 일원적 지휘가 불가능해졌다. 이런 방위조건 때문에 도(道) 단위의 책임지역방위제가 마련된 것이다.<sup>2)</sup> 수군의 지역책임방위제도란 적의 침입규모에 따라 수군의 방어규모와 그 역할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 것을 말한다.<sup>3)</sup>

첫째, 적왜선이 10척 이하가 침입했을 경우 만호가 휘하 군졸과 병선을 지휘하여 응전하고, 인근 포소(浦所)에 경보한다.

둘째, 적왜선이 26척에 이르면 첨사가 예하 만호를 지휘하여 방어한다.

셋째, 적왜선이 30척에 이르면 수사가 예하 도내(道內) 전 병력과 군선을 동원하여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온 수군에서 주목되는 것은 육군과 수군의 지휘권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이다. 지휘권은 지휘관의 권한에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육군지휘관은 수군까지 지휘하기를 원했고, 수군 지휘관 역시 그의

2) 『세조실록』 세조3년 9월 12일.

3) 『세종실록』 세종22년 3월 11일.

지휘권이 육군으로 확대되기를 원했다. 그렇게 될 경우 크고 작은 변고(變故)에 군사 징발이 빈번하여지고 공격과 방어에 대한 명령이 수륙군 지휘관에게서 동시에 발령되어 군사 작전에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다분하였다. 이와 같은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성종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왜적이 바다 가운데 있을 때는 수군이 접전하고, 육군은 육지에서 적이 육지로 오르지 못하게 한다. 불행히 적이 육지에 상륙했을 경우 육군이 접전하고, 수군은 해로를 막아 적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럴 때 수사(水使)가 마음대로 육군을 지휘하게 되면 병사(兵使)가 그에게 소속된 군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고, 각 진에서는 두 지휘관의 명령을 받게 되어 누구의 지휘에 따라야 할 지 몰라 반드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번 그러한 단서가 열리게 되면 비록 어업에 종사하는 왜인들이 가고 오는 변고에도 빈번히 군사를 징발하는 폐단이 일어나 그 혼잡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sup>4)</sup>

성종이 수·육군 지휘권을 분리한 목적은 군사징발과 전투 때 명령의 중복하달과 지휘 통솔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것은 결국 수군을 육군에서 독립시킨 결과가 되었다. 수군이 육군에서 독립됨으로써 수군의 특수성을 살린 해전술과 무기 그리고 군선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해전이란 군인이 군선에 승선하여 바다에서 전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 수군이 해전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된 것은 육군이 사용하는 진도(陣圖)와 진설(陣說)을 보급 받게 되면서 부터이다.

“군대가 적과 대항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진과 후퇴는 물론이고 진법을 알아야 함으로 진도(陣圖)와 진설(陣說)을 각 영진에 배포해 주십시오.”

전라도 병마사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세종2년 전군에 진도와 진설을 배포

4) 『성종실록』 성종 13년 3월 1일.

하였다. 진도와 진설은 육군 전투를 위해 연구된 병서지만 이 병서가 수군에 보급됨으로써 수군은 이 병서를 이용하여 선단편성, 기동항해, 기류통신 등을 응용 발전시켰다. 그 결과 세조 11년에 이르면 수군은 독자적으로 수전(水戰)을 수행할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세조는 불시에 한강에 주둔해 있던 경기 수군의 전투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어 병조판서 김질을 좌상대장을 삼고, 서원군 한계미를 우상대장으로 삼아 모의 수전을 하도록 명했다. 불시에 행한 모의 수전이었지만 수전이 끝난 후 세조는 다음과 같은 관전평을 하였다.

“오늘 수전을 관전해 보니, 모든 사람이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조금도 힘쓴 것이 없는데 방법에 따라 수전이 행해졌다. 수전이 정정당당하고, 병선이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모습이 마치 육전에서 공격과 방어하는 것과 같았다. 내 더 이상 수군을 점검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sup>5)</sup>

국왕의 호평에 고무된 수군은 군선을 타고 바다에서 적을 추격·나포하거나 불리하면 후퇴하는 임기응변의 단계를 벗어나 추격·검색·나포의 절차를 수행하고, 적과 조우(遭遇)할 때는 신속한 기동항해를 실시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전술도 개발하였다. 특히 성종 대에 이르면 수세적 방어 전술에서 공세적 전술로 전환하는 항해술의 발전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조전소(助戰所)의 운영이다. 조전소란 해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수색선단의 경비초소로 지정하고, 수군선단이 포(浦)와 조전소 사이를 왕래하면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수군은 적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해 선제공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 도만호(都萬戶)에게 선단의 편대장 임무를 부여해 수군의 기동항해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sup>6)</sup> 특히 수군의 해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 습전(浦 習戰)을 월 2·3회 실시하여 말단 부대부터

5) 『세조실록』 세조11년 8월 2일.

6) 『성종실록』 성종21년 9월 28일.

항해·포술(砲術)·지휘통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보였다.

해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함재 포의 명중률이 중요하다. 비록 적선을 먼저 발견하고 선제공격을 하였다 해도 우리가 쏜 포의 탄환이 적선을 명중시키지 못하면 곧바로 적의 반격을 받게 된다. 조선 수군은 적선 격침용으로 총통(銃筒)을 군선에 탑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육전에서 사용하던 학익진 전술을 해전에서 활용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 학익진이란 적 선단을 우리 포탄이 떨어지는 위치에 두고 공격하는 해전의 전술로 포의 명중률을 높이는 전법이었다.<sup>7)</sup>

조선 전기 수군 전력 강화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판옥선(板屋船)의 등장이다. 중종 전반기까지 조선 수군의 군선은 대·중·소의 맹선제(猛船制)였다. 맹선의 특징은 비전투요원과 전투요원이 한 장소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전투 시에 노와 포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판옥선은 당시 한·중·일 군선의 장점과 왜구의 등선백병전(登船白兵戰)을 고려하여 건조된 최선에 군선이다. 판옥선의 전술적 우수성은 갑판이 상하 이중 갑판으로 되어 있어 비전투원인 격군은 하 갑판에서, 포 요원과 사수들은 각각 상갑판에 위치함으로써 전투 시 노와 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발전시켰다. 판옥선의 선체가 고대견고(高大堅固)하여 왜구의 장기인 등선백병전(登船白兵戰)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또한 판옥선의 선저가 평저선(平底船)이기 때문에 선회반경이 작아 선체가 크면서도 선회가 자유로운 전술적 장점이 있었다.<sup>8)</sup>

## 2) 일본 수군

일본은 왜구의 해양활동과 해상무역, 그리고 서양문명의 접촉과 조총의 보급 등으로 조선보다 강한 수군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7) 장학근, 「水操에 나타난 이순신의 전술」, 『이순신연구논총』 1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9.

8) 김재근, 「평저선의 속력」, 『韓國船舶史研究』, 139쪽.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과 같은 독립병종(獨立兵種)의 수군제도를 발전 시키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수군의 모체는 왜구와 육군이였다.<sup>9)</sup> 임진왜란에 참전한 수군 장수들 중 왜구 출신은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 구루시마(來島通之, 來島通總) 형제와 스게 다스나까(菅達長), 호리우치 우지 오요시(堀内氏善) 등으로 이들은 원래 무라카미 해적 출신이었는데, 히데요시가 통일전쟁을 할 때 휘하 무사로 편입되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그들이 세운 군공으로 다이묘로 승진하게 된 수군세력가들이다. 특히 임진난(壬辰亂) 때 일본군 선봉장으로 출전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도 구루시마와 함께 왜구활동으로 다져진 해군력을 이용하여 히데요시의 가신이 되었고, 쟁고쿠 통일전쟁에서 군공을 세워 히데요시의 신임을 받아 그의 직속 다이묘가 된 인물이다.<sup>10)</sup> 또한 시고쿠(西國) 지방에서 유명했던 시오 우라지마(塩浦島)의 해적은 쟁고쿠 통일과정에서 오다 노부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수군으로 여러 번 징발되었다가, 결국 모리 씨와 고바야카와 씨 등 몇몇 다이묘 휘하의 수군으로 분리되고 재편되기도 했다. 규슈 지역의 왜구들도 그곳의 다이묘 휘하의 수군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1588년 7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해상적선의 금령(海上賊船の禁令)에 따라 왜구 활동이 금지됨으로써 왜구로 활동하던 집단세력들은 히데요시의 직속 수군이 되거나 각 지방 다이묘 휘하의 수군으로 재편되었다.<sup>11)</sup>

왜구 출신과 달리 그들의 모태가 육군인 수군장들도 일본 수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 예를 살펴보면 임진난 때 수군 장수로 참전했던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구와야마 가즈하루(桑山一晴) 등은 모두 왜구와는 관련이 없는 육군 장수들이었다. 이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쟁고쿠 통일전쟁 과정에서 군공을

9) 宇田川武久, 『日本の海賊』, 誠文堂新光社, 1983, 173~174쪽.

10) 三鬼清一郎, 「朝鮮役における水軍編成につ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20周年記念論文集, 1968』, 173~174쪽.

11)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67쪽.

세워 다이묘가 되었는데 그들이 받은 영지가 해안지역이었기 때문에 수군에 편입되었을 뿐이다<sup>12)</sup> 이들 중 수군 세력을 보유한 유력 다이묘는 모리(毛利) 씨였다.<sup>13)</sup> 그는 1551년 세토나카이 주변에 있는 아키노쿠니(安藝國)의 오우치(大內) 씨가 가신 스에 다카후사(陶隆房)의 반란으로 패망할 무렵에는 상당한 군 세력가로 성장해 있었다.

한편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마지막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끼(足利義昭)를 교토에서 추방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혼슈(本州)의 중앙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압하는데 노력을 집중했지만 그의 강력한 적대 세력은 농민세력과 연계한 일향종(一向宗:淨土眞宗)의 봉기였다.<sup>14)</sup> 이 때 오다 노부나가는 호쿠리쿠(北陸), 오미(根江), 이세(伊勢)를 차례로 제압한 후 일향종의 이시아마 혼간지(本願寺)를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막강한 수군세력을 보유하고 있던 모리씨가 일향종 편에 가담함으로써 노부나가와 모리씨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전투해역이 이시아마(石山)라고 하여 이시아마 해전이라고 부른다. 전투는 2차에 걸쳐 행해졌다. 제1차 이시아마 전투에 참가한 양측의 수군세력을 비교하면 오다 노부나가 측은 마나베시 치고산베이(眞鍋七五三兵衛)와 누마노 덴나이(沼野内) 등이 거느린 군선 300여 척이었고, 모리 측은 구루시마 모토요시(來島元吉), 노미 무네카쓰(乃美宗勝), 무라카미 요시쓰구(村上吉繼) 등 14명의 장수가 거느린 군선이 7-800여 척이었다. 전투결과는 함정 수가 우세한 모리씨의 승리였다.<sup>15)</sup> 이 해전에서 모리 측은 왜구의 기본전술인 등선백병전(登船白兵戰)을 발전시켜 화공전술(火攻戰術)을 구사하기도 했다.<sup>16)</sup> 그러나 화공전술은 상대의 군선을 소침(燒沈)시키는 전술이 주가 아니라 지상의 혼간지를 봉쇄하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 군에게 병력과 무기를 공급하는 병참선단의 역할이 주 임무였다.

12) 宇田川武久, 『日本の海賊』, 誠文堂新光社, 1983, 182~183쪽.

13) 宇田川武久, 위의 책, 82~125쪽.

14) 高橋幸八郎, 『日本近代史論』, 지식산업사, 1981, 69쪽.

15) 吉成勇編, 『戰國合戰 古記録』, 원서방, 1999, 146~147쪽.

16) 이민웅, 앞의 책, 63쪽.

한편, 전투에 패한 오다 노부나가도 수군세력을 보유하고 있던 구키 요시다카(九鬼嘉隆)에게 대선 6척을, 다키가와 가즈마스에게 대선 1척을 건조하게 했다. 그것은 1차 해전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모리 측의 군사력은 1차 해전과 동일했지만 오다 노부나가 측은 대선 7척에다 파괴력이 강한 대철포를 선박에 탑재하고 있었다. 전투 결과는 우세한 신형함정 7척에 대포를 탑재한 오다 노부나가 군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 해전도 함대함(艦對艦) 전투가 아니라 상대 병참선을 차단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이와 같은 전투양상은 일본 수군이 육군에서 독립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수군의 임무가 수륙병진(水陸並進)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 수군이 발전시켜 온 군선은 두 종류다. 첫째는 세끼부네(關船)로서 임란 해전에 참전했던 군선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선체는 조선의 판옥선보다 작았다. 판옥선 보다 작았기 때문에 일본 수군은 그들의 장기인 등선백병전을 조선수군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 아다께(安宅船)는 생고꾸시대 말기에 등장한 대선으로 조선의 판옥선과 선체가 비슷했다. 임란 해전에서 일본군은 아다께를 주로 대장선이거나 지휘선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선군의 집중공격을 받았고, 본체(本體) 위에 설치한 2·3층의 누각은 조선군 화포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일본 군선과 조선 군선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군선의 선저가 평저선인데 반해 일본 군선은 침저선이다. 그 결과 조선군선에 비해 일본군선의 회전 반경이 컸다.

둘째, 조선 군선의 돛대는 척당 두 개인데, 일본 군선은 하나이고, 조선 군선의 노 한 자루에 격군 4명이 노역에 종사하지만 일본 군선에는 한명이 원칙이고 필요시 두 명인 경우도 있다.

셋째 군선의 선체 강도를 비교하면, 조선의 판옥선은 본체 위에 튼튼한 나무 기둥을 세우고 두꺼운 송판으로 외판을 만들어 선체 전체가 튼튼했던 것에 비해 일본군선은 얇은 판자로 외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가 약했다. 이러한 군선의 차이로 인해 조선군선은 고대견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회가 자유스러웠고 기동력이 좋았으며 중형화기를 탑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의 장기인 등선백병전(登船白兵戰)을 무력화하고, 중형화기인 총통을 이용하여 적선을 파괴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반면 일본 수군은 왜구출신이거나 육군 출신을 막론하고 전국전쟁(戰國戰爭)은 영국확장(領國擴張)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수군의 임무는 육군지원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전술은 언제나 육군과 보조를 맞추는 수륙병진(水陸並進) 전술이 기본일 수밖에 없었다.

### 3. 임진란과 조·일 양국의 수군 운용책

#### 1) 일본의 침략전술과 수군운영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에는 종래 무로마치 바쿠후(室町幕府)의 관료였던 슈고 다이묘(守護大名)의 세력이 약해지고, 지방 세력에 불과 했던 쯔고꾸 다이묘(戰國大名)가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했다. 당시 쯔고꾸 다이묘들은 내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속 영지 경영에 전념하면서 영지 내 가신과 주민들에게 충성의 표시로 군인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였다.<sup>17)</sup> 이 시기에 신무기가 도입되어 군사작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것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상인들이 가져 온 조총(일본에서는 鐵砲라고 함)이었다. 다이묘들은 조총을 구입해 내전(內戰)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자, 조총은 수입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쯔고꾸 다이묘들이 조총을 자체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조총이 자체 생산되자, 폭 넓게 보급된 조총으로 인해 일본의 전술은 큰 변화를 보였다. 이제까지는 기병체제가 군사력의 우위를 보이던 것이 조총을 보유한 보병이 기병을 압도하게 된 것이다. 이 변화는 곧바로 축성술에도 영향을 미쳐 험준한 산기슭에 축조되었던 산성이 인가에 축성되었다. 그 성은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고 내부에서

17) 민두기,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1976, 115쪽.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이중 성벽으로 축조되고, 내부구조도 복잡하게 축조되었다.<sup>18)</sup>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열도 통합은 혼슈(本州)에서 큐슈(九州)에 이르는 열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그 주변에는 여전히 소속이 불분명한 지역과 그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천하평정은 열도의 범위를 넘어 대천하(大天下)와 그 중추라고 생각되는 중국대륙까지 목표가 되었다. 1585년 간바쿠(關白)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국까지” 평정을 공언하고 계속되는 열도 통합과정에서 그는 “중국까지”를 통합의 목표로 내세웠다.<sup>19)</sup>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슬로건은 “무력이 강한 일본이 대명문인(大明文人)의 나라를 쳐 부순다.”는 것이었다.<sup>20)</sup>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가다(博多)와 나가사키(長崎) 등지의 무역항을 자신의 직할 영지로 삼아 그곳에서 풍족한 군자금을 조달받고 그가 접수한 모든 영지에 대해 대대적인 검지사업(檢地事業: 토지조사)과 가정인수사업(家丁人數事業: 인구조사)을 착수하여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전시인력동원 체제를 확립했다.<sup>21)</sup> 지금까지 시장의 역할을 했던 사카이(堺)는 조충과 화약성분인 초석(硝石)을 제조하고 탄환용납을 수입하는 군사기지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sup>22)</sup>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거물급 다이묘 중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고바야카와 다카가게(小早川隆景)·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모오리 데루모토(毛利輝元) 등을 5대로(大老)로 삼아 전쟁 자문 역을 맡게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진출을 위해 첫째, 「유구-도해(渡海)- 명나라 동남해안 상륙-중국 대륙공격」 둘째, 「대마도-도해(渡海)-부산지역 상륙-북진(대륙진출)」 등 침략 경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둘째 안을 그의 침략 경로로 확정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일본에 체류하면서 천주교 전교를

18) 민두기, 앞의 책, 123쪽.

19) 朝尾直弘 저, 이계황외 3인 역,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 비평사 2003, 260쪽.

20) 위의 책, 253쪽.

21) 위의 책, 240~244쪽.

22) 민두기, 위의 책 123쪽.

하고 있던 프로이스 신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sup>23)</sup>

“일본인들은 넓고 먼 바다를 항해할 때 맹렬한 풍랑과 성난 파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선박을 보유하지 못했다. 또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대선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히데요시와 그의 참모들은 가능한 항해 거리가 짧은 곳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 때 히데요시는 ‘일본 가까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은 중국과 인접해 있으므로 먼저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한 뒤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조선에서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일본이 「조선을 경유, 중국 진출」이라는 침략방침을 정하게 된 것은 풍랑과 파도에 견딜 수 있고 많은 인원을 승선시킬 수 있는 크고 견고한 선박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sup>24)</sup>

- (4) 이번 출전에는 선박이 매우 중요하다. 선박을 많이 준비하여 보내는 것을 공적의 우선으로 삼을 것이니 전 부대의 선박 수를 기록해 후나부교(船奉行)에게 보고하고...(일본군이) 조선 육지에 상륙을 완료하면 각 부대는 자대(自隊) 선박을 통솔할 후나부교 1명씩을 임명해 선단과 함께 쓰시마로 돌려보내 후속부대가 곧바로 배를 타고 조선으로 건너 갈 수 있게 하라.
- (5) 조선왕이 일본에 입조(入朝)를 승낙하면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륙을 실시하라. 만약 조선왕이 입조를 거부하면 선박을 부근 섬에 정박시키고 지휘관들이 대책을 협의한 후, 상륙 순서에 관계없이 일시에 조선의 여러 포구로 상륙하여 진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견고한 성을 축조하라. 이럴 경우 규슈와 시고쿠와 주고꾸 지방은 물론이고 아와지 병사(淡路兵)와 구키 요시다카 등의 수군도 모두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23) 앞의 책, 177쪽.

24) 이형석, 『입진전란사』 상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7, 136쪽.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소집된 선박은 일본 수군(水軍)이 운용할 수 있는 군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상전을 위주로 하는 영주들이 그들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서 징발한 일반 선박이었으며, 육군을 도해(渡海)시키기 위한 선박이었지 해전용 선박이 아니었다. 그 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의 영지인 규슈 히고노쿠니(肥後國)의 크고 작은 선박들과 대마도에 도착한 뒤에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여 700여 척이 넘는 크고 작은 선박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출진하였다.”<sup>25)</sup>

조선 침략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본의 나고야와 대마도를 경유하여 그의 군대를 부산에 상륙시키는데 사용하였던 선박은 그의 영지와 대마도에서 징발한 일반 선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해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지상전 위주로 침략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직속 군이든 생고꾸 다이묘 군이든 간에 수군은 육군 지휘관 예하의 한 단위부대로서 병력과 무기 그리고 군량을 수송하는 해상 수송부대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방침, 침략군 지휘부 구성, 북진공격로, 각 부대 상륙 순서에도 해전을 상정한 어떠한 계획도 나타나 있지 않다.<sup>26)</sup>

25) Luis Frois, 『Historia de Japan』 중 임진왜란부분을 발췌하여 발간함. 국립진주박물관 엮음, 오만·장원철 옮김.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서출판 부키, 2003, 191쪽

26) 1) 작전방침 - 조선 출병 부대인 제1선 병단(158,700명)은 조선에 상륙하는 즉시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한성을 향해 북상하여, 한강 이남지역에서 조선군 주력을 섬멸해 조선전국을 점령할 수 있게 하라. 2) 침략군 지휘부구성 - 총대장: 우키다(宇喜多秀家), 참모: 마스다(増田長城)·이시다(石田三成), 선봉부대장: 고니시(小西行長)·가토오(加藤清正), 수군장: 구키(九鬼嘉隆)·토도(藤堂高虎), 3) 북진공격로 - 중로: 부산-대구-조령-충주-용인-한성, 동로: 울산-경주-죽령-여주-원주-한성, 서로: 김해-성주-김천-추풍령-청주-한성, 4) 각 부대 상륙 순서 - 제1군(小西行長) - 규슈지방군 18,700명, 제2군(加藤清正) - 규슈지방군 22,800명, 제3군(黑田長政) - 규슈지방군 11,700명, 제4군(毛利吉成) - 규슈지방군 14,700명, 제5군(福島正則) - 시코쿠지방군 25,000명, 제6군(小早川隆景) - 규슈지방군 15,700명, 제7군(毛利輝元) - 주고쿠지방군 30,000명, 제8군(宇喜多秀家) - 주고쿠지방군 10,000명, 제9군(羽柴秀勝) - 간키지방군 11,500명, 수군(藤堂高虎) -

## 2) 조선의 방어전략과 수군운동

조선 조정이 방위체도로 발전시켜 온 진관제도는 국제전을 예상하고 마련한 제도는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북방민족과 남방의 왜구 같은 비정규전에 대비한 국지전이며 단기전을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국제전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모순을 내재하고 있었다.

첫째, 진관제도는 수·륙 군을 막론하고 도(道) 이상의 방어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지휘관 임의로 인접지역을 돕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sup>27)</sup> 도 단위 이상의 전투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지 지휘관이 위기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면 조정이 경장(京將)을 임명하여 전투지역으로 보내게 되어있었다. 경장이 현지에 가서야 인접지역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을 퇴치하게 하였다. 그런데 경장이 임명되어 전투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보름 이상이나 된다. 전시의 보름이란 기간은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거나, 전쟁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후였다.

둘째, 진관제도는 행정단위와 유사하게 군진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수·륙 군을 막론하고 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많은 적이 일시에 일정 지역으로 집중·침략해 올 경우, 초전에 방어선이 무너질 소지가 많았다. 이러한 진관제도의 전술적 단점이 삼포왜란(1510년)과 을묘왜변(1555년)에서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그 모순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단지 일부 수사와 병사들이 병력집중방어제도를 연구하고 그것을 제도화 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그 한 예가 제승방략(制勝方略)이다.<sup>28)</sup> 제승방략이란 예상되는 전쟁지역 혹은 적의 예상 진로에 가용한 병력을 집중 배치하여 적이 침략해 오면 우세한 군사력으로 초전에 적을 진압하려는 전술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시도는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된

고노에(긴키)지방군 9,500명

27) 『성종실록』 성종 19년 5월 10일.

28) 장학근, 「제승방략이 지닌 병력운동의 가치」, 『군사』 6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7, 195~201쪽 참조.

것이 아니라 각도 병사와 수사들에 의해 임시방편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술내용과 운영방법이 통일되게 정비되지 못했다. 따라서 집결된 병력에 대한 지휘통솔, 주공과 조공의 편성, 각종 군수 지원 등의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런 실정에서 전쟁 발발 조짐이 점차 가시화되자, 조선 조정이 각도의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에게 내린 명령은 “일본군이 침략해 올 경우 적이 상륙하기를 기다려 육지에서 적을 제압하라”는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이 고작이었다.<sup>29)</sup>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이란 “일본은 섬나라임으로 수전(水戰)은 강하고 육전(陸戰)은 약하다. 반대로 조선은 육지의 나라임으로 육전은 강하나 수전은 약하다. 따라서 왜적이 침략할 경우 조선은 수전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적을 섬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sup>30)</sup> 이러한 논리는 수군 무용론(水軍無用論)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진왜란 발발 13일 전에 선조는 연안과 섬에서 해상방어를 수행하고 있는 수군에게 “육지로 올라가 방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sup>31)</sup> 그 명령에 따라 경상 좌·우도 수군은 군선을 연해에 매어두고 육지로 올라갔다. 그것은 해전을 포기한 것이었다. 그 결과 부산포 앞바다에서 집결해 있던 일본군은 해상에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전 군대가 상륙할 수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를 따라 온 중군 신부 세스페데스는 일본군의 부산 상륙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592년 4월 12일(일본의 음력은 한국 보다 1일이 늦음) 양력으로 5월 23일 고니시 유키나가가가 이끄는 제1진이 부산에 도착하여 이날 밤은 절영도에 머물고, 소 요시토시는 조선 측과 교섭하기 위해 먼저 상륙했다. 고니시 유키나는 즉시 성체 주변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하고,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항복 하라고 성안에 있는 장수에게 전령을 보냈다.”<sup>32)</sup>

29) 『중종실록』 중종 6년 12월 21일.

30) 『세조실록』 세조 3년 1월 16일.

31) 『선조실록』 선조 25년 4월 1일.

32) 국립진주박물관 엮음, 앞의 책, 195쪽.

선조실록의 일본군 상륙기록은 다음과 같다.

“적선이 바다를 덮쳐오니 부산 첨사 정발(鄭拔)은 마침 절영도에서 사냥을 하다 조공하러 오는 왜선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그가 미처 진으로 돌아가기 전에 적은 이미 성에 올랐다. ... 이튿 날 동래부가 함락되었다.”<sup>33)</sup>

위 두 기록 모두 일본군선 수백 척이 절영도 근해에 정박한 후 상륙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을 때,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상륙을 저지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된 것 “전 수군은 모두 육지로 올라가 육지에서 적을 방어하라”는 국왕 선조의 명령 때문이었다. 1592년 4월 14일 새벽 3시<sup>34)</sup> 일본군 제1진 18,700여 명이 바다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상륙하여 부산포와 동래성을 차례로 함락한 후, 충주를 향해 북상했다. 그리고 일본군 제2진 22,800명이 상륙하여 경주 영천을 거쳐 죽령으로 북진하였고, 제3진 11,700여 명이 상륙하여 창원 성주를 거쳐 추풍령으로 북진하였다. 이후 상륙순서에 따라 일본군의 후속부대 9진까지 상륙하여 정해진 경로를 따라 북상하였다.

일본군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자 당황한 조정은 순변사 이일을 상주로 보내 일본군의 북진을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도순변사 신립을 충주로 보내 일본군의 북진을 차단하려했지만 그마저 탄금대 전투에서 패전하였다. 신립의 패전 소식을 듣게 된 국왕 선조는 서둘러 피난길에 오르면서 전라 좌수사 이순신에게 “경상수사 원균과 합세하여 바다로 내려가 적 선단을 공격해 일본군의 북진 속도를 지연시키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sup>35)</sup> 이 명령은 그동안 수군 무용론(水軍 無用論)을 고수하던 조정이 급박해진 전황을 완화하기 위해 수군에게 ‘일본선단(日本船團)의 도해(渡海)를 차단(遮斷)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을 접수한

33) 『선조실록』 선조25년 4월 13일.

34) 국립진주박물관 위음, 앞의 책, 196쪽.

35)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1. 「赴援慶尙道狀」.

것은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북진하기 시작한지 13일이 지난 뒤였다. 그동안 왜선은 90여 척에서 500여 척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며 일본군의 일부가 서진(西進)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순신 함대가 주축이 된 조선 수군이 해상전투를 시작한 것은 1592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 간이다. 수군의 작전이 늦어진 것은 연해 각 포에 분산되어 있던 병력과 군선을 여수 앞바다로 집결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여수 앞바다에 집결된 조선 군선은 판옥선 28척, 협선 17척, 포착선 46척이었다. 이순신 함대가 주축이 된 조선 수군은 옥포, 합포, 적진포 해상에서 적선 42척을 격침하는 전과를 이룩했다. 이것은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에게 최초의 패배를 안겨준 전투로써 조선 수군에게는 해전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실의에 차 있던 조정에게 일본군을 격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조선수군의 2차 출전은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이다. 당시 일본수군은 연해를 노략질하면서 서진했다.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억기 함대와 합동함대를 구성하여 출전하려 했으나, 경상 우수사 원균으로부터 “급히 출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획을 앞당겨 출전하였다. 이순신 함대는 거북선을 포함한 전선 23척을 인솔하고 원균 함대 3척과 합류했다. 이후 이억기 함대가 도착하여 군사력이 강화된 조선 함대는 사천에서 13척, 당포에서 21척, 당항포에서 30척, 울포에서 7척의 일본군선을 격침시켰다. 이순신 함대가 2차 출전에서 이룩한 전과는 적선 72척을 격침시키고 적병 88명을 사살이었다.

조선함대가 3차 해상작전을 전개한 것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이다. 조선의 해상세력을 경시하고 지상군 위주의 침략을 강행했던 일본군은 그들의 수군이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아 연패하자, 일본 육군은 더 이상 북진할 수 없었다. 해상을 통해 병력 무기 군량 등을 공급받던 일본 육군은 해상교통로를 차단당함으로써 급속한 전투력이 저하된 것이다.

전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육전에 참전하고 있던 수군 장수들에게 ‘수군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 따라 와끼자카, 구끼, 가토 등의 수군 장수들이 수군에 복귀하여 안골포와 부산의

합선을 이끌고 조선 수군과 결전을 서둘렀다.

경상도 해상에서 일본의 함선들이 분주히 출몰하자 이순신은 3차 출전을 감행했다. 해상작전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다. 조선의 해상세력은 이순신 함선 23척, 이역기 함선 24척, 원군함선 7척이었다. 조선함대가 견내량으로 출전했을 때 와끼자카의 함선 73척이 견내량에 군집해 있었다. 이순신은 한산도 외해로 적선을 유인하여 학익진 전법을 사용해 적선 59척을 격침하고, 도주하는 잔여 적선을 안골포까지 추격해 그곳에 정박해 있던 군선을 합쳐 70여척의 적선을 격파하고 일본군 25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이룩했다. 이 해전이 바로 한산대첩이다. 한산도와 웅천에서 참패한 일본군은 북상하던 일본 지상군의 병력 일부를 후방으로 돌려 후방기지를 고수하고 그들의 수군을 서해로 우회시켜 부족한 군수품과 병력을 보충하려고 했다. 일본 수군의 서진 움직임을 포착한 이순신은 일본군의 병참기지인 부산을 선제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조선 함대가 전선 74척, 협선 92척, 포작선 166척을 이끌고 4차 출전한 것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간 이다. 당시 부산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일본군선 400여척이 무리지어 있었다. 9일간의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130여 척의 적선을 격파하고, 200여 점의 군수품을 노획했다. 임진년 한 해 동안 조선 수군은 4차 출전하여 10여 회 해전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 결과 일본군은 남해안으로 후퇴하면서 강화를 제안해 왔다.

### 3) 제3국인의 조·일수군의 평가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 군이 평양을 정령하고 가토오 기요마사 군이 함경도까지 진출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그는 조선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무장에게 ‘조선을 분할하여 그대들의 녹봉으로 지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sup>36)</sup> 그러나 그의 계획은

36) 국립진주박물관 엮음, 앞의 책, 230쪽.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자(使者)를 조선으로 보내 일본군 야전 장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회유했다. “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조선으로

다음과 같이 차질을 빚고 있었다.

첫째, 조선 의병의 일본 병참선(兵站線) 차단활동이다. 부산에 상륙해 중로(조령) 동로(죽령) 서로(추풍령)를 따라 북상한 일본군은 서울에서 합류한 후 다시 평안도와 함경도로 나뉘어 북상했다. 일본군의 북상은 속전속결(速戰速決)로 행해졌기 때문에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점선점령(點線占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병참선이 길어졌다. 이런 전술적 단점을 파악한 조선의 의병들은 매복전술로 적의 병참선을 중간·중간 차단하여 일본군의 북진전력을 약화시켰다.

예수회 신부로 임진왜란 때 고니시를 따라 종군한 프로이스는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북상하는 일본군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었고 해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바다로 수송되는 식량을 조선 각지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병사들이 동원되어야 했다. 동원된 병사는 많고 분산 배치된 병사는 소수였다.

지리에 익숙한 조선군은 유리한 곳에 매복해 있다가 불시에 약체인 군수기지를 기습하여 일본군을 살해하고 그들이 운반해온 식량을 남김없이 약탈해 갔다. 일본 병사들은 약탈을 피해 집단으로 오고가며 군량을 운반했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에도 많은 군량이 소모되었다.”<sup>37)</sup>

일본군 지휘부는 일본에서 바다로 운반된 군량을 각 전투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전투 병력을 군량운반 노무자로 전용했다. 각지로 흩어져 있는 부대로 군량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을 차출했다. 차출된 병력은 군량을 지급받은 후, 각자의 부대로 군량을 수송해 갈 때 모였던 병력은 다시 분산되어야 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점에 착안하여 미리 유리한 곳에 매복해 있다가 자대로 귀대해 오는 소수의 군량 수송병들을 살해하고 군량을

건너가 그 땅에 있는 우리 무장 전원에게 그들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에 감사의 뜻으로 그 나라를 분할해 높은 녹봉으로 보답하려 한다.”

37) 국립진주박물관 위음, 앞의 책, 218~219쪽.

모두 빼앗아 왔다. 그러자 일본군들은 조선 의병의 기습을 방지하기 위해 소집한 군량수송병을 분산하지 않고 전 부대를 돌며 군량을 분배하게 했다. 그것은 군량지급의 지연을 가져와 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둘째, 조선 수군의 활동이다. 1592년 조선 수군이 4차 출전하여 10여 회의 해전에서 승리하자, 전투 병력과 군수품이 부족해진 일본 지상군은 그들이 점령했던 평양과 한성을 버리고 남해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 푸로이스(Luis Frois)가 집필한 『일본사』에 조선수군과 일본 수군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조선 수군의 배는 견고하고 선체가 높았으며 무기·탄약·식량을 가득 싣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일본군에게 적대 질을 했는데, 일본 배를 발견하면 곧바로 기습하여 약탈했다.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보다 해전에 훨씬 익숙했기 때문에 일본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일본군의 재난은 끝이 없었다. 해전에서 연패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토 요시아키와 이와노쿠니(阿波國)의 다른 영주에게 300척의 선박에 무기와 탄약, 그리고 정예병을 승선시켜 조선으로 보냈다. 새로 투입된 일본군은 자신들의 우수한 장비를 믿고 조선 수군을 찾아 나섰다.

일본 증원선단이 오기 전부터 조선 수군은 일본 배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차에 군수품을 가득 실은 일본 선단을 만나자 환호성을 지르며 일본 선대(船隊)를 공격했다. 조선 선박은 선체가 높고 튼튼했기 때문에 공격하자마자 일본 배를 제압했다. 조선 수군이 먼저 총통을 발사하며 공격하자 일본 선대는 어찌할 줄 몰라 당황했다. 일본 수군이 불리한 해전을 피하려고 외해로 도망치려고 하면 조선 수군들은 튼튼한 갈고리가 달린 쇠사슬을 일본 배에 걸어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일본 수군은 배를 빼앗기고 병사 대부분이 살해되었다.”<sup>38)</sup>

위와 같이 일본이 1592년 조선을 침략할 때 그들은 해전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전에서 조선 수군에게 연패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38) 앞의 책, 234~236쪽.

그의 심복 2명에게 300여 척의 선박을 주어 조선 수군을 공격하게 했지만, 도리어 그들은 조선수군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당했다.<sup>39)</sup> 프로이스는 조선 수군의 승리 요인에 대하여 '조선 군선의 고대건고(高大堅固), 중형무기의 탑재운용, 사조구(四爪鉤)로 도망적선 저지 등 조선 수군의 용맹성을 열거하였다. 그것은 조선 수군이 해상방어와 해전을 발전시킴으로써, 육군에 예속된 일본 수군보다 우수한 전투력을 해전에서 발휘했음을 설명한 것이다.

## 4. 정유재란과 조·일·명의 수군운용

### 1) 일본의 재침 전략과 수군

도요토미는 1596년 9월 초 오사카에서 명의 책봉사 일행을 접견했지만 자신이 요구한 강화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자 조선을 재침략했다. 그는 육군 115,000여 명과 수군 7,000여 명을 조선 보내 조선에 잔류해 있던 2만여 명의 일본군과 합류하도록 했다. 1597년 1월 14일 가토의 제1군이 부산 다대포에 상륙하고, 고니시의 제2군이 웅천에 상륙하여 거점을 확보한 것이 확인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음과 같은 작전지침을 하달했다.

1. 전라도(赤國)을 철저히 공략하라. 충청·경기도(靑國)와 기타 지역은 가능하면 공격하라.
2. 작전이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 점령지에 성주를 정하고 성곽의 보수공사를 철저히 할 것이며, 귀환자를 차출하도록 하라.
3. 감독관(監軍) 7명은 전황을 사실대로 보고하되 전공자를 포상하고 군율을 어기는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라.
4. 모든 전황보고는 감독관 7명이 전담하되 사심 없이 하라.
5. 선봉부대로 나설 때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되, 선봉의 공을 갖고

39) 임진년 10회의 해전을 총괄한 피해를 기술한 것으로 판단됨.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라.

6. 명의 대군이 한성에서 5·6일 거리에 도달하면 지체 없이 보고하라. 내가 좌우 근신 만 거느리고 신속히 바다를 건너가 명군을 섬멸한 후 명나라로 진격할 것이니 방심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일본군이 임진년 경부축선을 따라 세 경로로 북상했던 것과 달리, 정유년의 주된 침략지역은 전라도였다. 그것은 “임진년 우리(일본)가 조선 8도를 모두 점령했지만 조선을 멸망시키지 못한 것은 양호(전라도·충청도)의 저력이 수로를 통해 서로(西路)에 미쳤기 때문”<sup>40)</sup>이라는 전훈에 따른 조치였다. 일본군이 “전라도를 철저히 공략하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본군은 반드시 수륙병진(水陸竝進) 전술을 성공시켜야 했다. 일본이 그들의 군사력을 호남지역에 온전히 투입하기 위해서는 해상의 수군이 육군의 서진 속도에 맞추어 항해하면서 인원·군량·무기를 필요한 때 즉시 지원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진년 전투 때 그들의 육군이 진주를 점령한 후 남원으로 진격하려 할 때 이순신 함대에게 제해권을 빼앗겨 그들의 수륙병진 전술을 순조롭게 수행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제해권의 강화를 위해 1592년 10월부터 군선의 대형화를 추진했다. 그는 간바꾸(關白)이며 조카인 도요토미 히데쓰구(豊臣秀次)에게 ‘아다게 건조’ ‘이세(伊勢) 신궁의 선재(船材) 채벌’ ‘대불영조용(大佛營造用) 정철을 조선용(造船用)으로 전용’ ‘직할령 조세로 선장(船匠)과 목수 품삯 지급’ 등을 명령했다.<sup>41)</sup> 이와 같은 조치는 모두 조선 군선이 고대견고(高大堅固)하여 일본 수군이 수세에 몰렸었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였다. 특히 모리 씨의 책임 하에 세토나카카이에서 제작된 아다케는 임진년에 사용되었던 아다케 보다 견고하고 선체가 커져 대포도 탑재할 수 있었다. 일본은 군선 대형화와 병행하여 해전 전술의 개발에도 노력했다. 1596년 12월 명의 책봉 사절과 함께 일본을

40) 『난중잡록』 3, 3년 8월 20일.

41) 渡辺世祐, 「朝鮮役と我々造船の發達」, 『史學雜誌』 46-5, 1935. 576~579쪽.

다녀온 황신(黃愼)이 입수해온 군사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의 수군은 수전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선박도 견고하여 일본 수군이 맞서 싸운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만일 어두운 밤에 기습하되, 조선의 대선 한척에 일본 소선 5·6척 내지 7·8척이 일시에 기습 돌진하여 싸운다면 조선군선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일본 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술은 함대함(艦對艦) 전투 대신 소선(小船)을 이용한 기습 전술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등선백병전(登船白兵戰)만으로는 조선 수군을 격퇴시킬 수 없자, 소선을 이용한 기습전술을 개발한 것이다. 황신의 정보보고 내용은 비변사를 통해 수군통제사에게도 전달되었다.<sup>43)</sup> 특히 일본의 재침이 가시화 되면서 일본군의 공격 목표가 조선 수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조선 조정에게 알려지기까지 했다.<sup>44)</sup>

그러나 일본이 조선 수군을 와해시킨 방법은 군사력이 아니라 이간책(離間策)이었다. 이간책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나라 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가토 기요마사 간,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오 기요마사 간에 실시된 바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93년 명 측이 가토오 기요마사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살해하여 일본 왕이 되라고 부추긴 사실이 있었고,<sup>45)</sup> 1595년 5월 28일 청안현감 전유형(全有亨)이 가토오 기요마사를 일본 왕으로 봉하는 계책으로 가토오와 히데요시를 이간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sup>46)</sup> 당시 조선 조야에서는 일본의 두 야전 지휘관,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오 기요마사 간에 군공논쟁으로 불화가 심하니 이것을 이용하여

42) 黃愼, 『秋浦集』 권2, 啓 「通信回還後書啓」.

43) 『선조실록』 선조 29년 12월 23일.

44) 주 42) “일본이 재침하게 되면 먼저 전라도와 제주도를 침범하고 또한 주사(舟師)를 침범할 것이다.”

45) 『선조실록』 선조 27년 3월 4일.

46) 위의 책, 선조 28년 5월 28일, 「전유형의 시무상소」.

이간책을 쓰면 일본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런 때 고니시 유키나가가 자기 부하 요시라를 경상우수사 김응서에게 수시로 보내 신뢰를 쌓았다. 그런 후 가토오의 도해설을 흘려 수군통제사 이순신을 해임시키고, 원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을 칠전량에서 와해시키는데 성공했다.<sup>47)</sup>

“조선 수군이 칠전도에 도달했을 때는 밤2경이었다. 왜적은 어둠을 이용하여 잠입해 있다가 불의에 포를 쏘아 우리전선 4척을 불태워 격침시켰다.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 함선은 왜선을 추격하여 포획하지 못했다. 새벽이 밝아왔을 때는 이미 적선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다. 아군함선들은 부득이 고성의 연해로 피했다가 그곳 육지로 올라가자 그곳에도 왜군이 진을 치고 있었다. 우리 군사는 손쓸 사이 없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sup>48)</sup>

조선 수군이 와해되자, 부산에 와 있던(1597년 7월 8일) 일본군은 조선에 잔류해 있던 2만여 병력과 합류하여 서생포, 부산포, 죽도, 안골포, 가덕도 등에 주둔하여 전투편성을 마친 후 전라도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총대장 소바야가와(小早川秀秋)는 일본군을 좌군과 우군으로 나누고, 우키다(宇喜多秀家)가 총지휘하는 좌군 48,600여 명을 고니시(小西行長), 시마즈(島津義弘) 하치스가(蜂須賀家政) 등이 나누어 지휘하면서 고성-사천-하동-구례-남원-전주로 향하게 하였다. 모리(毛利秀元)가 우 대장인 64,300여 명의 군대는 가토오(加藤清正), 구로다(黑田長政), 나베시마(鍋島直茂) 등이 나누어 지휘해 낙동강을 건너 거창-안의-진안-전주로 향하도록 했다.

일본 우군이 전주를 점령했을 때 좌군은 8월 16일 남원을 유린하고 19일 전주에 입성함으로써, 전라도가 일본군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 때 육군으로 남원성 공격에 참전했던 일본 수군이 하동으로 남하 하여 수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토도(藤堂高虎), 가토오(加藤嘉明) 와키자카

47) 일본의 이간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48) 『선조실록』 선조 30년 7월 22일, 「원군의 패전에 대한 비변사의 논의」.

(脇坂安治), 구로시마(來島通總) 등이 지휘하는 함선 330여 척은 하동에서 서진하여 그들의 육군부대를 해상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수륙병진(水陸竝進) 전술로 전라도를 점령한 후 충청도를 거쳐 조선의 도성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 북상하려고 했던 것이다.

## 2) 조선의 대응전략과 수군

1596년 12월 23일 통신사 황신은 '일본의 재침이 예상되며, 공격목표는 전라도와 제주도 그리고 조선수군이라는 급보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일본의 계략까지 첨부했다.<sup>49)</sup>

황신의 급보를 받았지만 조정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일본군이 연해와 도서에 주둔하여 둔전을 경작하고 시장을 개설하여 생필품을 마련한 후 그들의 세력을 영남 전역으로 넓히고, 속전속결로 북상하게 되면 큰 일'이라는 한탄만 했다. 이런 때 강화회담을 주도하여 조선 조정에 온건파로 알려진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의 부하 요시라를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보내 '가토오를 해상에서 체포하라'고 권했다.<sup>50)</sup> 김응서는 비변사를 통해 그가 수집한 정보를 조정에 보고했다. 선조는 요시라의 정보를 신뢰하여 도원수 권율을 이순신에게 보내 '군선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나아가 가토오를 해상에서 체포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간교한 첩자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며,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여도 반드시 적은 복병을 배치하고 우리 선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출전하지 않았다.<sup>51)</sup>

고니시는 자신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가토오가 군선을 이끌고 1월 14일 이미 다대포에 상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시라를 통해 "가토오가 7일간이나 바다위에 머물러 있다가 21일야야 예정된 곳에 상륙하였다"고 통보

49) 『선조실록』 선조 29년 12월 23일.

50) 위의 책, 선조 30년 1월 19일.

51) 조경록, 『난중잡록』, 정유년 8월 20일.

하였다. 그러자 김응서의 아병 송충인은 ‘이순신이 출전하지 않아 가토오를 체포하지 못한 것과 조선이 하는 일이 항상 그렇다’는 고니시의 조롱까지 첨부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sup>52)</sup>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져 급기야 선조는 “한산도의 장수[이순신을 지칭함]는 편히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른다.”고 이순신을 불신하면서 그를 압송하여 오라고 명령했다.<sup>53)</sup> 수군통제사는 이순신에서 원균으로 교체되었다. 원균이 수군통제사가 된 이후에도 일본군의 후속부대는 연이어 부산에 상륙했다. 도원수 권율은 원균에게 군선을 이끌고 부산으로 나가 해로(海路)를 차단(遮斷)할 것을 강권했다. 그러자 원균은 “안골포와 가덕도에 있는 일본군을 조선의 육군이 바다로 밀어내 주면 수군이 일본군을 섬멸한 다음 함대를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비변사와 도원수 권율은 안골포와 가덕도가 해안 깊숙한 곳에 있어 육군이 일본군을 바다로 밀어 낼 수 없다는 점과 조선 수군이 부산 앞바다로 나가 해로를 차단해 일본의 증원 군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할 것만 강요했다. 그러자 원균은 부산 앞바다에는 많근 군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정박지(碇泊地)가 없어 선단을 보내더라도 일본군에게 포위될 위험성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함대 출전이 옳지 못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려 했다.<sup>54)</sup> 그러나 비변사와 도원수는 원균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에게 장형을 가해 출전을 강박했다. 이러한 조치에 불만을 갖게 된 원균은 전 함대를 이끌고 부산앞바다로 나갔다. 이미 예기가 꺾인 원균 함대는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자마자 급류에 휘말려 선단이 분산되고 적의 공격이 강해지자, 원균은 군선을 수습해 가덕도를 경유 칠천량에 도착하여 식사 후 곧바로 해상 야영을 했다. 피로와 굶주림에 지친 조선함대는 “일본 소선의 기습”을 경고한 황신의 정보를 유념치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로 인해 조선수군은 섬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칠천량 해전

52) 『선조실록』, 선조 30년 1월 23일.

53) 위와 같음.

54) 위의 책, 선조 30년 5월 12일.

에서 배설을 제외한 전 지휘관들이 전사하고 태반의 군선이 불타고 격침되었다.

조정은 이순신을 통제사에 재임명하여 와해된 수군을 부흥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이순신이 수습한 판옥선이 12척에 불과하자 조정은 ‘해전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울 것’을 명했다. 이순신은 수군폐지와 다름없는 선조의 출륙(出陸) 명령에 대해 해상방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sup>55)</sup>

“임진년 이후 5·6년간 왜적들이 감히 충청도와 전라도를 침범하지 못한 것은 오직 우리 수군이 적의 해상 진출을 성공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사오니, 죽기를 각오하고 적을 막는다면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군을 전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의 원하는 것으로, 적은 호남 연안을 따라 단숨에 한강으로 북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유한 전선의 수가 비록 적다고 하나 신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왜적이 우리 수군을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칠전량 패전으로 조선 수군이 와해 직전에 있을 무렵, 다행히 이순신이 13척의 군선으로 130여 척의 일본군선을 명량해협에서 퇴각시키는데 성공하여 일본군의 수륙병진(水陸竝進) 전술을 좌절시켰다. 이후 수군은 장산도를 거쳐 고하도에서 겨울을 난후 고금도로 수군 진영을 옮겨 ‘군선의 건조’ ‘둔전경작과 군량 확보’ ‘군사 훈련’ 등을 통해 수군 재건에 노력했다.

### 3) 조·명 연합함대 구성과 왜교성·노량해전

전라도를 유린한 일본 육군은 공주를 거쳐 북상하다 1597년 9월 5일 직산에서 명나라 부총병 해생(解生)에게 격파됨으로써 일본군은 남하하여 울산에서 순천에 이르는 남해안 전략지점에 성을 쌓고 전세가 호전되기를

55) 『이충무공전서』 하, 권13, 기실 상.

기다렸다. 명의 경리 양호와 마귀 대장군은 1597년 12월 20일 경주에서 울산의 가토오 기요마사 군을 공격했지만 고니시 유키나가가가 가토오를 지원함으로써 제1차 도산성 전투는 명군의 패배로 끝나자 명군은 서울로 철수했다.<sup>56)</sup> 명군을 지휘하던 경리가 교체될 때 군 지휘권은 총독 형개(邢玠)가 행사했다. 형개는 “조선은 산악이 많아 부대 간 정보교환과 군 작전이 어려움으로 지휘관 독자적으로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명의 군사력을 3분했다. 여기에 수군을 편입하여 중로 이여매(李如梅), 동로 마귀(馬貴), 서로 유정(劉綎), 수로 진린(陳璘) 등으로 결정하고, 동로군은 울산의 가토오 기요마사 군을, 중로군은 사천의 시마즈 오시히로를, 서로군은 순천 왜교성의 고니시 유키나가 군을 공격하기로 하고, 왜교성의 해상봉쇄는 수군장 진린이 담당하기로 했다. 여타 군과 달리 서로군에 수군을 배치한 것은 1597년 12월 1차 도산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수군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반성과 ‘만일 조선 수군이 해전에서 패하면 북경(중국내륙)이 위협해 진다’는 명정(明廷)의 ‘자국영토 전장화 방지전략’에 따른 조치였다.<sup>57)</sup>

1598년 8월 4로군 지휘관이 서울에 모여 9월 20일 진시(辰時: 오전7-9시)에 정해진 목표를 일제히 공격하기로 했다.<sup>58)</sup> 이 작전을 총 지휘했던 형개는 ‘양전음화(陽戰陰和)가 당국의 전략이었다’고 했다. 이는 명군이 ‘겉으로 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 강화교섭을 한다’는 의미로써 조선 전쟁에 임하는 명나라 군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에서의 전투는 승리보다 시간을 끌어 일본군의 퇴주를 기다리자는 태도였기 때문에 명군의 작전은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이다.

한편 순천 왜교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장 유정이 지휘하는 육군이 지상에서 공격하고 이순신과 진린이 지휘하는 조·명 연합수군이 해로를 차단함으로써 일본군은 철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6) 조경록, 앞의 책 戊戌 9월 15일.

57) 『明史』 열전208, 외국열전1, 조선전 참조.

58) 위의 책, 무술년 8월조.

고니시는 생존을 위해 수비전략(守備戰)과 탈출전략(脫出戰)을 구사했다.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본국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살아 돌아가기 위해 그는 유정과 진린에게 뇌물을 바쳐 해상봉쇄를 풀어달라고 애걸했다. 명나라 군부는 어떤 형태로든 종전(終戰)이 되길 원했지만, 조선군은 일본군에 대한 철저한 복수(復讐)<sup>59)</sup>를 다짐하고 있었다. 1598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조·명 연합함대가 왜교성을 공격할 때 유정이 지휘하는 명의 육군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음을 다음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

“성위에 있던 여자가 ‘지금 왜적이 다 도망갔으니, 중국 군대는 속히 성으로 돌진해 오시오!’하고 소리 쳤다. 기회가 이같이 좋았는데도 중국군대는 팔짱만 끼고 끝내 공격하지 않았다.”<sup>60)</sup>

승리할 수 있는 순간에도 전투를 기피한 것은 명의 육군만이 아니었다. 명의 수군도 마찬가지였다. 즉, 고니시 유키나가가 명장 유정을 뇌물로 매수해 안전한 철수를 약속 받으려 하자, 진린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고니시가 이번에는 ‘은 100량과 보검 50자루를 진린에게 보냈다. 진린은 즉각 퇴로를 허락했다.’<sup>61)</sup> 진린이 전투에 미온적이고 뇌물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진린을 극진이 예우하자 진린이 탄복하여 전란 끝까지 협조했다”는 기록을 난중일기에 남겼다. 그러나 진린이 ‘협조했다’는 짧은 기록은 “진린이 전투를 기피하자 이순신이 함선을 이끌고 선제공격을 가하자, 진린은 할 수 없이 이순신에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62)</sup>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듯 조·명 연합함대가 2차에 걸친 왜교성을 공격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유정과 진린이 전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조·명 연합함대가

59) 선조실록에는 일본을 ‘같은 하늘아래 살 수 없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60) 『선조실록』 선조 31년 19월 2일.

61) 『난중잡록』 무술년 11월 12일.

62) 정구복, 앞의 논문 89쪽.

3차 출전한 것은 고니시 군이 도망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sup>63)</sup> 순천만 해상에 도착한 이순신은 예하 군선으로 해상봉쇄(海上封鎖)를 강화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고니시가 진린을 매수하여 소선(小船)을 남해 쪽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니시가 해상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남해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에게 구원 군을 요청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순신은 예하 장수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시마즈의 구원 군이 올 경우 우리 수군은 고니시 군과 시마즈 군의 협공을 당해 위협에 처할 것임으로, 먼저 시마즈의 함대를 공격한 후 고니시 군의 퇴로를 차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sup>64)</sup> 이순신은 그 사실을 진린에게 통보하고 먼저 함대를 노량해협으로 이동하자, 진린 함대도 따라나섰다.

1598년 11월 18일 새벽 2시경 시마즈 함대가 노량해협을 건너오면서 해전이 시작되었다. 일본 함대는 사천, 남해, 부산에서 파견한 군선 500여 척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맞선 조·명 연합함대 세력은 진린 300여 척, 왕원주 100여 척, 그리고 이순신 판옥선 80여 척이었다.

조경남은 그의 저서 『난중잡록』에다 노량해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경상우수사 이순신(李純信)이 달려와 보고하자, 진린과 이순신(李舜臣)이 군선을 거느리고 노량으로 나갔다. 우리 함대는 관음포 해상에 주둔하고, 명 함대는 죽도 해상에 진을 쳤다. 그 날 밤 일본 함대가 노량해협을 건너오자 조·명 함대가 좌우에서 불화살과 포를 쏘아 공격하니 적선 태반이 불타고 부서졌다. 조선 수군이 사력을 다해 적 선단을 관음포로 밀어붙였다. 동이 틀 무렵 이순신이 몸소 복채를 들고 전투를 독려하며 적선을 추격했다. 그 때 이순신이 적병이 쏜 탄환에 맞아 쓰러졌다.”<sup>65)</sup>

63) 『난중일기』 무술년 11월 8일.

64) 안병준 『은봉전서』 권7 「노량기사」.

65) 조경남, 앞의 책, 무술년 11월 19일.

이순신은 철저한 복수를 마음에 새기며 해전에 임했다. 불리했던 해전이 호전되면서 이순신 함대가 공격에 박자를 가할 때 이순신이 적의 탄환을 막고 전사했다.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왜교성의 고니시 군이 남해섬 남단을 돌아 부산으로 갔다. 시마즈도 잔존함선을 이끌고 부산으로 도주했다. 그들이 부산에서 일본으로 퇴각함으로써 7년간의 지루한 전쟁이 끝났다.

## 5. 결 론

조선이 수군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왜구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왜구가 극성을 부리자 군인과 군선을 연안 포구와 섬에 배치하고 일정한 해역을 구획하여 왜구의 침탈을 방어했다. 그것을 진관제도(鎭管制度)라고 한다. 해양방위를 담당하는 수군들은 왜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기동항해, 군선, 그리고 선상무기를 발전시키는 꾸준한 노력을 했다. 그 노력으로 조선 수군은 선단의 편제, 지휘통신, 기동항해 등 전술을 개발하고, 판옥선이라는 고대견고(高大堅固)한 군선을 만들어 왜구의 등선 백병전(登船 白兵戰)을 무력화 시켰다. 또한 각종 총통(銃筒)을 탑재하여 적선을 파괴하는 위력적인 능력을 보유하였다.

일본 수군의 근원은 왜구와 육군이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접어들자 왜구들도 영지 전투(육전)에 참여하여 군공으로 다이묘가 되거나 선박을 이용하여 군수품을 수송하는 수군에 편입되었다. 한편 육군 장수로서 군공의 대가로 받은 영지가 바닷가인 관계로 수군에 편입된 경우도 있었다. 왜구 출신이거나 육군 출신의 수군을 막론하고 전국전쟁(戰國戰爭)은 영토확장 전쟁이었기 때문에 수군의 임무는 육군지원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전술은 언제나 육군과 보조를 맞추는 수륙병진(水陸並進) 전술이 기본이었다.

히데요시는 천하통일이라는 망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그의 세력권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었다. 그 망상을 이루기 위해 그

는 유구에서 남지나해를 건너 중국으로 진출하는 방안과 대마도에서 바다를 건너 부산에 상륙한 후 육로로 중국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가 결정한 것은 후자였다. 그것은 넓고 먼 바다를 건널 때 풍랑과 성난 파도를 견뎌 낼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명의 수군을 제압할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 조정은 조선을 침략할 때 해전에 대비한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이 임박했을 때 조선 조정은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방왜육전론이란 '일본은 섬나라임으로 수전은 강하고 육전은 약하다. 반면 조선은 육지의 나라임으로 육전은 강하고 해전은 약하기 때문에 일본이 침략할 경우 일본군이 상륙하기를 기다렸다 강한 군사력으로 일본군을 육지에서 제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국왕 선조는 일본이 침략하기 13일전 각 도 수사들에게 '예하 군선을 바닷가에 매어두고 수군을 거느리고 육지로 올라와 방어에 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은 해양방위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으므로 일본군은 해상에서 조선 수군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고 상륙·복상하여 불과 보름 만에 도성을 점령했다.

위기를 느낀 선조는 전라 수사 이순신에게 원군과 합세하여 적 선단을 공격해 일본군의 해상교통로(海上交通路)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순신은 원군 함대와 연합하여 옥포해전에서 승리한 이후, 이순신·원군·이억기 함대와 연합하여 당포, 한산도, 부산포 해전에서 승리했다. 그동안 의주에 피난 가 있던 국왕 일행이 환도하였다. 도성은 물론 평안도와 함경도까지 진출했던 일본군이 도성을 버리고 남해안으로 후퇴하여 명나라와 강화회담을 시작했다.

일본군이 재침하게 된 것은 명·일간의 강화회담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재침략 목표는 전라도와 조선 수군이였다. 그것은 1592년 조선을 침략해 호남을 제외하고 조선 전국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빼앗지 못한 것은 호남 때문이었다는 판단에서였다. 조선이 호남에서 군량과 병력을 확보해 일본군에게 반격을 가하고, 조선 수군이 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일본군이 남해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쟁 교훈에 따른 조치였다. 일본군

지휘부는 군대를 전라도로 보내기 전에 이간책으로 수군통제사 이순신을 제거 하는데 성공했다. 조선 수군통제사가 교체되자 일본 군부는 원군함대를 부산 앞바다로 유인하여 예기를 꺾은 다음 칠천량에서 섬멸적인 타격을 가했다.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수군통제사에 임명했다. 그러나 군선 12척으로는 제해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정은 이순신에게 다시 육지로 올라가 방어하라는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의 명령을 내렸다. 이순신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해양방위(海洋防衛)의 결의를 보이고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 후 이순신은 고금도에 수영을 설치하고 고니시 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 광양만에 대한 해상봉쇄를 감행했다.

육지와 바다로 철수로(撤收路)를 잃게 된 고니시 유키나가는 수비전략(守備戰略)과 탈출전략(脫出戰略)을 병행했다.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본국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그는 살아 돌아가기 위해 유정과 진린에게 뇌물을 바쳐 해상봉쇄를 풀어달라고 애걸했다.

명나라 군부의 전략은 전투 없는 종전(終戰)이었지만, 조선은 일본군에 대한 철저한 복수심(復讐心)<sup>66)</sup>을 갖고 있었다. 이런 때 이순신에게 고니시의 소선(小船)이 해상 봉쇄선을 넘어 외해로 나갔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것은 고니시의 뇌물을 진린이 받고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이순신은 시마즈의 구원함대가 노량해협을 넘어 올 경우 고니시 함대와 시마즈 함대의 협공을 받게 될 것임으로 우선 시마즈 함대를 섬멸한 후 고니시군의 퇴로를 차단 하기로 했다. 이순신의 함대가 노량으로 이동하자 진린 함대가 따랐다.

시마즈 함대가 노량해협을 넘으면서 해전이 시작되었다. 조·명 연합함대가 승세를 잡았을 때 일본군의 조총 탄환에 맞아 이순신이 전사하였다. 전투가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을 때 왜교성의 고니시가 선단을 이끌고 남해섬 남단을 돌아 부산으로 갔으며, 시마즈도 잔존 함선을 이끌고 부산으로 도주했다. 그들이 모두 조선에서 퇴각함으로써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이 끝났다.

임진왜란 7년간 조선 조정의 수군 운용책은 일본의 수군의 정확한 군사

66) 선조실록에는 일본을 '같은 하늘아래 살 수 없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선 수군을 운용하였다. 그 결과 임진년과 정유년의 초전 전투가 모두 조선에 불리하게 전개되었으며 수군 지휘관 이순신의 전술운용을 힘겹게 했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원고투고일 : 2012. 8. 30, 심사수정일 : 2012. 11. 27, 게재확정일 : 2012. 11. 30)

주제어 : 임진왜란, 정유재란, 진관제도, 판옥선, 맹선제, 등선백병전, 수군운용, 방왜 육전론, 수륙병진, 노량해전

<ABSTRACT>

## The Naval Employment of Korea(Chosun), Japan, and China(Ming) during the Imjin War

Chang, Hak-keon

Traditional Korean naval system was established to prevent Japanese pirate. As Japanese pirates' activities had increased, the Chosun kingdom had deployed sailors and warships in ports along the coastline and islands to repel invading Japanese pirates from the sea. And they divided sea areas into several sea sectors to defend each sector by themselves.

For the purpose of sea defense, naval forces had been developing flotilla organization, command and communication, maneuvering tactics, and constructed flat-house-type warships with the bigger hull and the higher freeboard than the Japanese warships in order to neutralize Japanese boarding tactics.

The traditional Japanese navy was originated from Japanese pirates and its army. Both Japanese pirate and army used similar tactics, since its navy used to fight together with the army during their civil war.

Hideyoshi had a ambition to conquer the world, ie the whole Asia including China and India. Neither he had strong warships nor naval capabilities to defeat Chinese navy. As a result, he had no plan for naval battle to invade Korean peninsular.

At that time, Korean court was preoccupied with the concept that "Japanese are strong in naval battle because they are islander" and "Koreans are strong in ground battle because themselves are continental people". The Korean court expected land battle and ordered naval commanders to fight on land. This measure allowed Japanese amphibious landing and resulted in serious consequence. As Chosun gave up naval battle, the Japanese landing forces invaded and overpowered defending

forces occupied the capital within fifteen days.

Frightened and land-oriented King Sunjo asked Admiral Yi Sun-sin and Won gyun to interdict Japanese forces supply line (sea line of communication). Fortunately Admiral Yi and Won's combined fleet won the naval battles continuously. So the Japanese forces had to withdraw southward and took defensive posture to begin peace talks.

Japanese forces invaded again after the failure of truce talks. This time their objective was Jeollado farming area and Korean navy. Japanese learned lessons from the previous mistakes and manipulated to set up admiral Yi Sun-sin. When Admiral Yi was relieved from the command, they induced Korean fleet to Busan port and destroyed it at Chilchunryang strait.

The Chosun court reinstated Admiral Yi Sun-sin as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combined fleet. Again, the court ordered land battle to Korean navy since there remained only twelve warships. But Admiral Yi strongly suggested to fight at sea because he knew it would be the best way to save his country. He won the Myungryang sea battle and made a glorious naval history. After the dramatic victory, he built new naval base for combined fleet at Gogumdo, and endeavored to block Japanese fleet from escaping.

Japanese general Gonisi lost ways to escape by passing through blockade line, he tried to withdraw from the peninsular while conducting defensive operations. When Japanese strongman Hideyosi died, Gonisi bribed Chinese admiral Jin Rin. Chinese military strategy was to end the war without battle, but Koreans were ready to die for revenge. In that situation, a Japanese spy boat ran away due to negligence of Chinese navy. Admiral Yi Sun-sin prepared for final sea battle and began to sail with battle formation. He decided to attack first approaching Simaz fleet from the sea, then to block the fleeing Gonisi fleet later. As Admiral Yi departed the port to move to Noryang, the Chinese fleet followed to support. Naval battle began when Simaz fleet approached Noryang strait. As Korean-Chinese combined fleet secure victory, Admiral Yi Sun-in was

shot and dead. The remaining crushed Japanese fleet ran away to Busan and back to Japan. Finally seven years of Imjin war was over.

Key Words : Naval Employment, Imjin War, sea defense, flat-house-type warship, Japanese warship, King Sunjo, Admiral Yi Sun-sin, Chilchunryang strait, Japanese boarding tactics, Chinese military strategy